

— EIAK 소식 —

제 87차 이사회 개최

본회는 제87차 이사회를 지난 9월 8일 무역 클럽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구자학 본회 회장, 이상원 상근부회장 등 임원 18명이 참석하였는데 구자학 본회 회장은 금년 상반기는 일본의 엔고로 인한 수출증가와 내수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경기가 작년 동기보다 상당히 호전되었음을 설명하고 이는 그동안 전자공업인의 노력의 결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한편 주요 업무보고로 3/4분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했는데 최근 전자산업 경기동향, 한미 컴퓨터산업 협력 체제 구축 등 5건, 세계 각국의 전자정보산업 진흥정책 조사 등 7건, 현금 환불제 개선 등 10건의 대정부 건의, 업계 공동사업으로 CATV시스템 국산화 등 4건, 한국전자전 추진 현황 등 5건 등을 보고했다.



가전제품 재활용 사전 평가 기준서 검토 결과에 대한 건의

본회는 지난 9월 22일 가전제품 재활용 사전 평가 기준서 검토 결과에 대한 건의를 환경처 등 관련부처에 건의 했다.

동 건의에서 우리 가전업계는 “제1종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대한 고시 이전에 각사 품목별로 제품 재활용 사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동고시 시행에 따라, 본회를 중심으로 가전사가 기 실시중인 평가서를 근거로하여 실제, 수행가능한 항목 및 기준을 도출하여 제품 재활용 사전 평가 기준서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코자 하며 추후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에서는 동평가제도에 대한 규제 중심의 행정보다는 이 제도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가 우수한 제품의 기업에 대한 Merit System 도입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고시 별표의 사전평가 내용은 일본 “가전제품협회”의 제품 Assessment Manual로서 일본에서도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업체는 없으며 법적인 강제 이행 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고시 별표의 사전평가 내용은 일종의 Guideline로 하되 세부 이행항목 및 평가기준은 업계 자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제품의 수명 연장 대책이나 부품의 표준화 평가, 재료의 통합화 평가 건의 등은 일본의 경우 수년간 협의를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한 과

제로, 국내에서 근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 것은 제품특성, 경제성 및 국내 기술 수준 상 무리로 보며, 동평가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우리 업계의 평가 기준서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입법 예고(안)에 대한 건의

본회는 지난 9월23일 동입법 예고(안)에 대해 환경처 등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동입법 건의는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지난 8월 2일 건의한 바 있으나 우리 업계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재차 건의하게 된 것이다.

한편, 동건의에서 소형 전자제품에 대한 합성수지 완충재 사용금지는 시기 상조라 생각되며 선진국처럼 감량화의 적극적 유도, 재활용의 확대, 회수 의무화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후 대체 포장재가 충분히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필요에 따라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밝혔다.

이는 대체제의 수급차질 및 막대한 비용부담과 원가상승으로 인한 제품가격 인상요인 발생, 정부의 물가 안정화 시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감안 생산자 단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동입법예고(안)이 보완 되어야 할것을 명시 하였는데 첫째로 '92년 환경처 고시 발표 이후 각 업체별로 감량목표를 수립, 활동하고 있으며 감량목표치 설정이 기업마다 차이가 있고 활동 결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

둘째,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 감량기준을 설정할 경우 의욕적 활동을 추진한 업체는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대체재 개발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감량기준은 유통품질 불안정 발생 등

기업경영 손실 우려가 높다.

셋째, 향후 사용되는 완충재가 합성수지 재질이더라도 재생재활용 가능성이 입증될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항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CATV 시스템 국산화율 96%

본회의 CATV기기산업협회의회는 최근 개국한 수원방송국에 설치한 종합유선 방송 설비의 국산화율이 방송장비 78.8% 동축전송장비와 가입장비 100% 등 평균 95.8%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카메라 유닛, 5인치 뷰 파인더, 스튜디오 모니터 및 스피커, 프로그램 시스템, 스튜디오, VCR, S-VHS, 문자발생기 등 방송장비의 국산화에 성공 이번 에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품질을 인정 받게 됐다.

또한, 동축 전송장비 분야에서는 망 감시 장치, 동축 케이블, 각종 증폭기, 방향성 결합기, 분배기, 전원 공급기, 코넥터, 가입자 보안기, 터미네이터 등 모든 장비를 국산화 하여 설치했으며 가입자 장비인 컨버터와 모니터의 국산화도 실현했다.

폐가전 효율처리를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

본회는 국내 가전업체와 공동으로 폐가전 제품의 효율적 처리 방안과 폐기물 예치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자원연구소가 시행할 이번 용역 사업은 95년 2월까지 5개월간 계속될 예정인데 폐가전제품의 회수·처리 현황, 선진 외국의 폐가전 제품의 회수·처리 시스템 조사 분석, 가전제품의 환경 규제 관련 법규제도 현황 등이 주

로 다루어 진다.

한·미 전자의료기기 기술협약회의 개최

본회의 전자의료기기산업협약회의는 지난 9월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동기술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미 산업기술 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 의료기기 제조자 협회(HIMA) 대표단이 본회를 방문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 측은 Medtronic사의 Fred S. Halverson 부사장 등 4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측은 두산상사 한원국 상무 등 10명이 참석했다.

한편 미국 HIMA대표단은 CE(Community European) Marking 제도를 설명했는데 동제도의 서류절차, 기술문서, 제조업체의 지침 및 안정서 등을 설명하고 유럽에서는 '95~'98년까지 기존제도와 CE Marking 제도를 병행해서 시행하며 '98년 6월부터는 완전 시행됨을 밝혔다.

또한 한국 측은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력을 통한 세계시장 공동진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자부품산업협의회

동 협의회 센서분화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본회 회의실에서 동분과위 회원사들이 참석, 회의를 개최하고 동분과위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지 난 9월8일 동협의회는 본회 회의실에서 저항기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분과위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오 협의회는 지난 9월27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AL전해 커패시터 표준

화 위원들이 참석 Inner Box 표준화를 협의했다.

청 소기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공청소기용 금속 연장관 및 소음 시험방법 표준화를 협의했다.

전 자부품 등록 심의 위원회를 지난 9월30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전자부품등록센터 설립계획(안)을 검토하고 동협의회 창립 총회 일정을 협의했다.

가전산업협의회

가 전산업협의회는 지난 9월2일 상공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휴대폰 스테레오 국내 시장 활성화 대책과 정보교류에 힘쓰기로 했다.

지 난 9월9일 동협의회는 상공부 회의실에서 음향기기 수입관련 업계 회의를 개최하고 대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동 협의회는 지난 9월13일 폐가전제품의 효율적처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 사업 추진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 과제별 연구 인력 분담 방안 협의, 가전3사 전담반 구성 등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동 협의회는 지난 9월29일 팔레스 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중 HDTV 분과위원회 워크샵 개최를 위한 추진 방향에 관해 협의 했다.